

수신 :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발신/민원인 : [REDACTED]

제목 : 쿠팡 물류센터 점검 결과 확인 요청(추가)

---

1. 적층식 랙이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 다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해 직접 확인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요?

그동안의 건축법 및 국토부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물류창고의 '적층식 랙'이 작업을 위해 사용되면 '설비'가 아닌 '거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적층식 랙'의 설치에 '증축'에 해당되는 허가사항입니다.

해당 센터는 '적층식 랙'을 설비로 사용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가요? 국토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민원인은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쿠팡은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적층식 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기에 불법 행위를 하였고, 즉각적인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를 설비로 둔갑시켜 각종 세금 등을 축소했던 사실도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쿠팡의 적층식 랙에 대해 최초 불법이라 판단한 후 시정명령을 예고하였으나, 쿠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대로 그 공간이 '적층식 랙'에 해당하는 '설비'인지, '증축' 허가가 필요한 '거실'인지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해당 센터외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쿠팡의 다른 물류센터들도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였으나, 경기도 광주시는 국토부의 판단이 있는 후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조속히 해당 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 민원인과 광주시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그 판단의 근거 등에 대해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 차관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셨으니 이제 와서 허가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은 절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